



과학수사와 CSI 효과

## 과학 수사의 대중적 관심 키운 CSI 효과

글 이응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crime21c@hanmail.net



글쓴이는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법공안행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범죄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과학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활발한 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 형사사법시스템은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재판관의 면전에서 증거에 관한 논박을 구술로 벌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결국 경찰 수사가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대한 다툼이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 한국 과학수사의 지속적 성장

하지만 인류와 함께 해온 범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학수사가 시작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그로스가 1893년도에 펴낸 저서에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용기와 자질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과학수사의 효시라고 보고 있다. 1900년에 에드워드 헨리는 지문분류법을 개

발하였고, 오거스트 볼머는 1923년에 LA 경찰국에 최초의 감식 실험실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 역시 지속적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발전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성을 갖게 되었다. 현장에서 채취된 신원불상의 범죄현장 지문, 변사자 지문, 행려환자 지문 등을 고속 검색을 통해 찾아내어 신원을 확인하는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AFIS)을 비롯하여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증거를 분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은 현재 경찰수사의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타이어 흔적을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범인을 성공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쇄 강간범 및 방화범의 거주지 예측에 적합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정밀 수사를 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경찰 과학수사의 개기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범인 검거라 할 수 있다. 특히 미제사건 및 연쇄성 범죄의 해결에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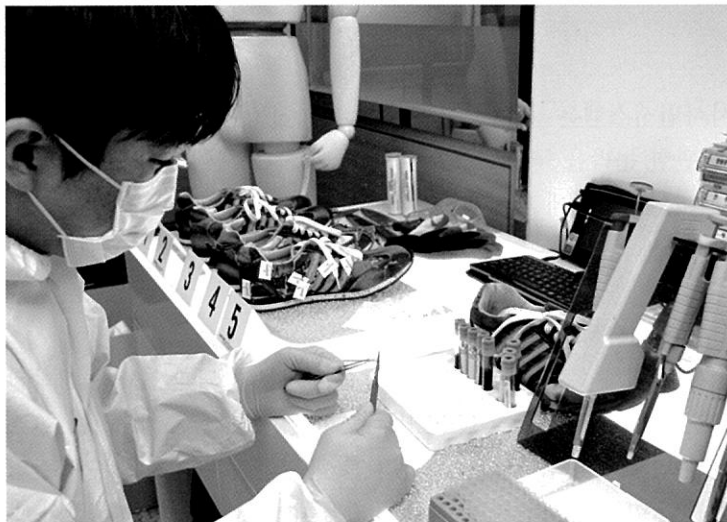
#### 과학수사의 대중적 관심 키운 CIS 드라마

하지만 성장하는 경찰 과학수사의 배경에 주목을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어떻게 과학수사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의 역할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드라마의 등장은 과학 수사보다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이 공유토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CSI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 과학수사와 관련된 드라마들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 중 3천만 명 이상이 CSI 드라마를 보며, 적어도 7천만 명이 위 3가지 드라마 중 한가지는 본다고 한다. 과학수사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 인기는 범죄학자들로부터 하여금 CSI 효과(CSI effect)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CSI 효과와 관련한 아래의 만화는 이러한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 족흔적 감정



▶▶ 유전자 분석



▶ 출처 : <http://www.scadconnector.com/news/the-csi-effect/>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사건과 관련하여 10명의 증인이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동기도 있고, 범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배심원 중의 한 명은 DNA가 발견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실제로 범죄현장에서 DNA가 발견되는 것은 50% 미만이나, 드라마에서는 각종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되고, 이러한 증거를 극적으로 발견하여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한다.

#### 과학수사 발전 위한 투자와 홍보 이뤄져야

CSI 효과는 이처럼 대중, 특히 배심원들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DNA를 포함한 과학적 증거를 인정하고, 모든 범죄는 과학적 증거를 남기며 이러한 증거들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과학수사의 개척자이자 프랑스의 셜록 홈즈라고 불리는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현실 수사에서는 증거의 미발견이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각종 과학적 지식들을 CSI와 같은 드라마를 통해 습득하면서 보다 차원 높은 과학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과학수사가 처한 딜레마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과학수사가 나아갈 방향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과학 수사 관련 학과의 개설, 우수인재의 과학수사로의 영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투자와 수사영역으로의 응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과학수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단발성에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대중의 과학수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ST**